한국미술사 '답 찾기' 40년

금산사 공포 조사 장면. 강우방 원장은 스님들이 우리 불교문화재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화여대대학원 교수 재직시 학생들과 함께 떠난 경주남산 답사

신라 금관 조사. 영기화생론으로 조형예술의 원리를 풀어가고 있는 그는 신라금관도 영기화생으로 풀 수 있다고 말한다.

송광사 불화 조사 당시 찍은 기념사진

어 문화재청 관리도 중요하고 소양을 갖춘 지자체 공무원이 문화재를 담당해야합니다. 결국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있어야 불교문화재도 보존될 수 있습니다."

세계로 향하는 영기화생론

불교조각을 전공했으나 불상을 이해하기 위해 불교사상 전반을 공부하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불경이나 불교 관련 서적을 탐독해 '여래', '보살', '열반', '정각' 등 불교적 사고방식 전반을 이해하는 것이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런 학문적 노력을 바탕으로 성립된 영기화생론으로 그는 한국 건축, 불화, 공예 등 모든 장르의 의문을 풀 수 있었으며 일본과 중국 조형미술의 모든 장르도 쉽게 풀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일향 한국미술사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이와 관련한 모든 장르를 10년 간 강의해왔다. 연구원의 강의는 일반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추지는 않는다. 영적 세계를 알아가고자 노력하는 지성인들을 위한 강의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자 공부 등 문자교육이 필수라고 그는 강조한다.

"제가 하는 연구는 일반 대중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수준 높은 문자 교육을 바탕으로 그 이면에 숨겨진 조형언어의 원리를 끊임없이 찾을 수 있는 의지 있는 이들과 함께하고 있죠. 학력 수준에 관계 없이 이런 학문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계층이 분명 있습니다. 저는 한자공부는 조형언어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기화생론' 은 고차원의 세계이며 세계조형예술 역시 고차원의 세계이므로 한자를 모르면 설명할 길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해독한 조형언어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우선 한계가 있지만 문자언어인 한자와 한글을 올바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이론은 한국의 문화유산에만 머무르지 않기에 세계 문화유산 해석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는 지난 봄 일본의 제총산대학 기와 연구회 초청으로 일본 기와 전공자들을 상대로 기와무늬의 상징에 대해 강연한 바 있다. 일본에 기와 연구자가 3000명이지만, 기와의 불교적 상징에 대한 강연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또한, 지난여름 7월에 아테네에서 ATINER(Athens Institute for Education and Research)주최로 열린 대규모 세계 대회에서 불교미술에서 정립한 영기화생론으로, 그리스 로마 신전의 캐피털(공포, 㮨)의 조형들을 서양학자들과 전혀 다르게 해석 신전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발표를 가졌다.

"영기화생론으로 서양의 그리스 로마의 조형미술의 상당부분이 풀리기 시작했는데 이 역시 서양 미술사학자들이 간과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비잔틴 미술, 르네상스 미술에서 무엇인지 모를 조형들을 모두 풀어낼 수 있었어요. 그간 한국미술사를 차근차근 연구한 결과였죠. 조형예술은 문자언어로 쓰여진 진리보다 더 감동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내년에는 파리에서도 발표를 갖는다. 프랑스 고딕 성당, 즉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의 초석을 중심으로 기둥의 개념을 올바르게 정립해 성당의 새로운 개념을 정립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논문을 마무리한 상태다.

"세계의 모든 종교건축의 조형원리는 똑 같다는 것을 깨쳤으므로 이런 발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슬람 국가에 가서 이슬람미술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며 영국, 독일, 스페인, 미국 등지로 가서 활발하게 매번 새로운 주제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강 원장은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무한히 거대한 산, 잃어버린 새로운 세계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아직까지도 밤 12시까지 연구에 몰두하며 청년 못지 않는 열정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강우방 원장. 그의 이론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 더 나아가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학문으로 자리잡기를 기원해본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전법일기

환산 불가능한 불교 정신 문화

세상 모든 것의 가치를 결정지울 수 있는 표준이 있을까?

가을 들녘의 수확량은 알아 낼 수 있을지라도 황금빛 출렁이는 들판의 아름다움을 가치로는 측량하지는 못할 것 같다.

살다보면 소중하지만 물질적 잣대로 가치를 정량하학 힘든 것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게 된다.

절에 온지 얼마 안 된 보살의 이야기이다. 한번은 자신이 다른 사찰에 갔다가 겪은 얘기를 했다. 작은 사찰에 우연히 들렸는데 처음 보는 주지스님이 대뜸 '요즘 사업이 잘 안되지?' 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 사실 하는 일이 어려워 갔었던 것이다. 스님은 천도재를 지내야 사업이 잘 풀릴 거라고 했다. 급한 마음에 그러고 싶다고 하며 가격을 물으니 100만원도 하고, 삼백, 오백, 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 스님이 아시다시피 사업이 여의찮으니 오백만원 천도재를 하고 '지금 경비를 반만 드리고 사업이 잘되면 나머지를 드리면 안 되겠냐?' 고 했더니 후불은 안 된다고 했다.

보살이 마음을 바꾸어 싼 천도재를 지내기로 마음먹고 다시 스님께 '삼백짜리는 어떤 염불을 하고 오백짜리는 어떤 염불을 하느냐?' 고 물으니 똑같은 염불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 왜 가격의 차이가 나느냐고 또 물었다. 그러자 그 스님이 정성이 다르다고 했다. 보살은 '스님께서 알다시피 지금 저의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싼 천도재를 올릴 테니, 스님께서 정성을 비싼 천도재처럼 정성을 기울여서 도와 달라' 고 했는데 스님이 이런 보살 처음 본다며 화를 내고 일어서버렸다는 얘기였다.

사찰에서 기도와 불공, 천도의식으로 돈을 받는 일에 경종을 울릴법한데도 초발심 보살은 그저 천진스럽게 이 일을 우째야 좋을지 자꾸 물었다. 사찰에서 지내는 49재와 천도재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오랫동안 말이 많은 게 사실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공연을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백만 원을 기부한다면 이것은 기부일까 아닐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좋은 기분의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기부라고 하면 안 될 듯도 하다. 기분은 보이지 않고 지불한 돈은 정확히 측량이 되므로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기부행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에 사찰의 천도재나 49재비용도 연말정산의 기부금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이 났다.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는 분위기를 반영 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찰의 불공의식은 단순히 의식에 따른 비용의 가치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통한 사찰에 기부하는 행위로 보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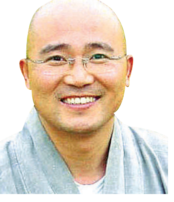
무형의 정신적 가치를 물질적 가치로 정량화 하기는 참으로 힘들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세상의 모든 유형, 무형의 가치는 반드시 돈으로 그 가치로 정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림 · 박구원

법화경 비유품 의주유(衣珠喩, 繫寶珠喩)에는 한 친구가 가난한 자신의 친구를 위해 귀한 보물을 옷에 넣어 주었으나 그 친구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가난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불교는 정말이지 무한한 유형적 가치와 무형의 가치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치를 현대사회에서 잘 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말 우리 불교도들은 우리들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알아내고 더욱 빛을 발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들이 오랜 역사가 베여있는 불교 유형의 자산과 무형의 보배로운 가치가 또 얼마나 많은지 하루 빨리 자각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모두 잃을 수도 있을 것만 같다.

현대사회의 유형의 물질을 쫓다가 잃어버린 무형의 자산들이 또 없는지 한번쯤 고개를 돌려 찾아보고 싶어진다.


성원 스님 (제주 약천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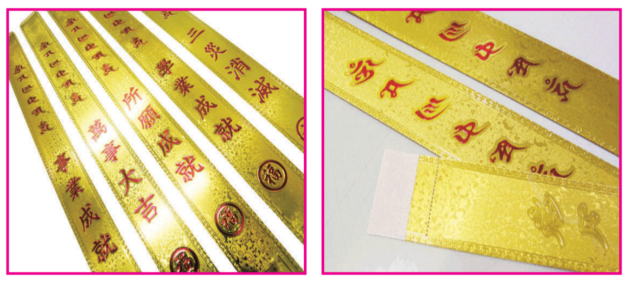
since1973
2015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 · 스노우지로 제작!!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051)515-8888 인터넷전화.070-7425-0518 FAX.(051)508-0101 H.P 011-554-2988
◆농협 : 0515-8888-09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12절 /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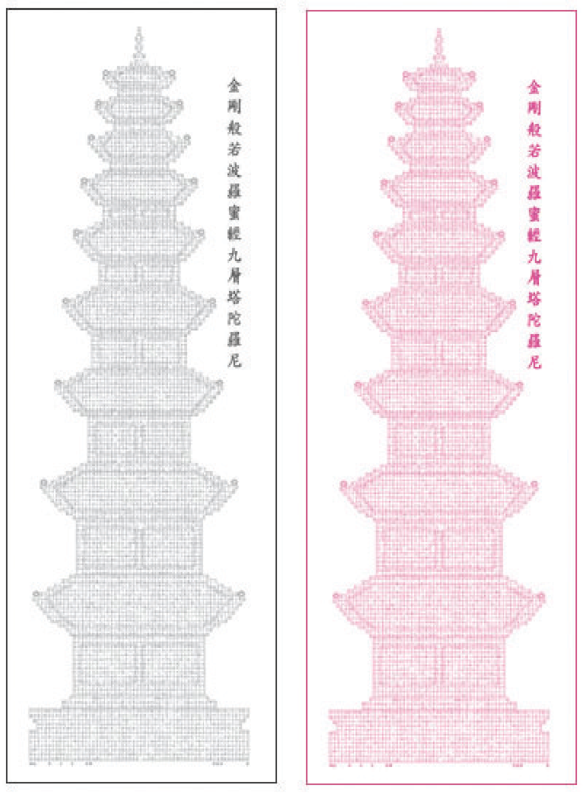
• 12절(벽걸이형 小)달력
삼천부 이상 @800원
이천부 이상 @900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26.5㎝

• 6절(벽걸이형 大)달력
삼천부 이상 @1000원
이천부 이상 @1100원
• 200부이상 @1,200원
• 규격 : 30.5㎝×31㎝

금띠지 등표
• 정가 1,000원
• 200매 이상 @700원
• 규격 : 3.5㎝×70㎝
만사대길 · 소원성취 · 학업성취 사업성취 · 삼재소멸 中 택 1
상단 뒷편에 양면테잎으로 되어 있어 원하는 곳 어디든 쉽게 부착가능하며 하단부분은 생,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 수첩달력 200부 이상
• 100부 @800원 • 매수:18장 @650원
• 규격 : 9.5㎝×13.4㎝

• 미니달력 200부 이상
• 100부 @600원 • 매수:16장 @450원
• 규격 : 8.9㎝×9.5㎝

금강경탑다라니 사경지(대형)
할인가 4,000원(50장이상) 정가 5,000원
• 68cm×195cm (먹색, 적색)
• 전통재래한지